

새로운 글쓰기 방식의 등장과 쓰기 교육

옥현진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

이 글에서는 현재 우리 대중들의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파악하고, 그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초·중등 단계에서의 쓰기 교육, 대학에서의 쓰기 교육, 더 나아가 성인 대상 쓰기 교육에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일지 한번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 시대 대중들의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글쓰기’ 현상이 무엇인가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도 있고 부각되어야 할 초점이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이 글에서는 일단 디지털 매체가 보편화됨에 따라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한 글쓰기 방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새로운 글쓰기 방식의 중심에 두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로 부터 파생되는 양상을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로 간추리고 그 각각에 대하여 국어 교육 또는 쓰기 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간략히 언급해 보았다.

1. 컴퓨터 기반의 글쓰기

개인용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전반에 걸쳐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디지털 기기가 종이와 연필을 대신해서 쓰기 활동의 주된 매체로 자리매김해 왔다. 최근에 이르러

서는 상당수의 글이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데 목적을 두고 작성되고 있는데,¹⁾ 그러한 방식의 소통을 위해서도 글은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디지털 기기로 작성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쓰기 환경 변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에 고시된 제7차 교육 과정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쓰기 교육과 관련해서는 ‘글을 컴퓨터로 옮겨 쓴다.’(3학년)나 ‘전달 효과를 고려하여 자신의 글을 컴퓨터로 편집한다.’(5학년)와 같이 컴퓨터라는 새로운 쓰기 도구와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교육 내용이 반영되었다. 하지만 최근의 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그러한 기초 기능이 교육 과정상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까닭은 학생들이 공교육에 진입하기 전 또는 진입한 후 학교 밖에서의 여러 활동을 통해 그러한 기초 기능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컴퓨터를 포함한 디지털 매체 기반의 글쓰기와 관련하여 타자나 편집하기 외에 쓰기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 답으로 무엇보다도 쓰기 교육에서는 쓰기의 과정에 동원되는 사고에 중점을 두어 왔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내용을 창안하고 생성 및 조직하며 표현하는 데 동원되는 정신 기능, 그리고 작성된 글과 앞으로의 글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데 동원되는 초인지적 전략을 말한다.

그런데 쓰기 도구의 변화는 이처럼 쓰기 과정에 작용하는 사고(또는 기능과 전략)에 변화를 초래한다. 일례로 필자는 글을 쓰는 일이 잦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가끔 컴퓨터 글쓰기에 익숙해진 이후로는 다시 손으로 글을

1) 이러한 경향은 각종 누리소통망(SNS)을 이용한 글쓰기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데,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2015)에서 실시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6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64.9%가 누리소통망을 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그 비율이 42%p 상승했다고 한다. 특히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데 있어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는 60대와 70대에서 그 비율이 전년도 대비 각각 10.7%p, 4.0%p 상승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쓰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을 듣곤 한다. 이 말은 단순히 손으로 글을 쓸 때의 물리적 고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글쓰기에 익숙해져 버린 사고를 다시 손 글쓰기로 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흔히 글이 글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처럼 글을 써 나가는 과정에서는 여러 갈래의 새로운 생각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며, 이러한 생각들을 잘 붙잡아 두었다가 필요에 따라 요긴하게 활용하는 것은 좋은 쓰기 전략의 하나이다. 컴퓨터는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고를 붙들어 두고 또 구체화하기에 용이하며, 때로는 그렇게 여러 곳에 펼쳐 둔 사고들을 재조직하면서 한 편의 글을 완성하기도 한다. 치밀한 계획 없이 우선 떠오르는 생각에 초점을 맞추어 내용을 작성하고 이를 다시 읽어 나가며 언어 규범에 맞도록, 독자가 읽기 쉽도록 고쳐 쓰는 것도 컴퓨터 기반의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이다.

“미디어가 메시지”라는 매클루언(Marshall McLuhan)의 말을 쓰기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새로운 쓰기 도구가 새로운 쓰기 사고를 형성한다는 정도로 풀이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사고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이 새로운 도구에 기반한 쓰기 능력을 발달시킨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쓰기 교육에서 이 부분은 별로 조명을 받지 못했고 교육 내용도 명시적·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학생들의 경우에도 막상 집에서 쓰기와 관련된 숙제는 컴퓨터로 수행하지만 학교에서의 쓰기 교육은 여전히 종이와 연필을 기본 수단으로 전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막상 컴퓨터 앞에 앉아서 글을 쓰면서도 종이와 연필로 글을 쓸 때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학생들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최근 들어 눈동자 움직임에 대한 연구나 컴퓨터 화면을 녹화하는 프로그램 등의 발달로 필자의 컴퓨터 글쓰기 과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의 성과가 축적된다면 앞서 언급한 교육 내용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글쓰기와 관련하여 기초 기능에 대한 교육이 여전히 필요한 곳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대표적으로 노년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분야가 그러하다. 흔히 우리나라를 일컬어 디지털 강국이라고 하지만, 사실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접근 및 활용 능력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세대 간 격차는 큰 편이다. 최근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시한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결과는 우리나라 성인들의 세대 간 디지털 격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평가는 오이시디 국가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컴퓨터 환경에서의 언어 능력 및 문제 해결력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평가 결과 전체 참여국(24개국) 중에서 최고 연령대(55~65세)와 최저 연령대(16~24세) 간의 평균 점수 차이가 가장 큰 나라는 우리나라였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이 평가 결과에 따르면 여성, 고령자, 미숙련직 종사자, 저학력자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분석되었는데, 따라서 여기에 속하는 국민들이 디지털 매체에 접근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사회적 소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 사회가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비언어적 글쓰기의 증가

지난 6월 영국에서 개최된 세계 여성 지도자 회의(Most Powerful Women Summit London 2016)에서 페이스북의 부사장 니콜라 멘델슨(Nicola Mendelsohn)은 앞으로 페이스북에서 동영상 기반 텍스트의 비중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페이스북 내에 ‘담벼락’이라고 하는 특정 글쓰기 공간에는 향후 5년 내에 동영상만 남을 것이라는 언급도 있었다. 페이스북과

같은 누리소통망(SNS)은 기본적으로 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며, 그러한 소통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동영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멘델슨 부사장의 설명이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 대중들의 누리소통망 글쓰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황성근, 2014).

비언어적 소통이 꼭 이야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블로그와 같이 정보나 견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둔 사이버 공간에서도 비언어적 소통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²⁾ 여행, 요리, 맛집 등이 블로그의 주요 주제라고 한다면, 이들 주제를 다룬 블로그 글쓰기에서 하나의 텍스트가 주로 어떤 형태로 구성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주로 사진이나 그림이며, 글은 그 이미지 자료에 대한 부연 설명일 때가 많다.

이처럼 대중들의 쓰기 방식은 문자를 중심으로 한 데에서 최근에는 그림, 사진, 이모티콘, 동영상, 음악 등 다양한 사회적 기호 체계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인다. 국어 교육계 내에서는 여러 기호 체계가 한 텍스트 내에 동시에 존재하면서 하나의 완결된 의미를 만들어 낼 때 그러한 텍스트를 복합 양식 텍스트(multimodal text)라고 하며, 그러한 텍스트를 수용하고 생산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복합 양식 문식성(multimodal literacy)으로 부르고 있다. 초등 저학년에서 그림일기를 쓰는 것, 중학교에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드는 것, 고등학교에서 영화를 제작해 보는 활동 등이 모두 복합 양식 텍스트 제작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복합 양식 문식성 교육에서의 핵심은 각 기호의 의미 작용 방식에 대해 알고 이들 기호가 어떤 방식으로 결합했을 때 더 쉽게, 더 재미있게, 더 효과적으로 의미가

2) 페이스북을 포함한 누리소통망은 지인들 간의 관계에 기반을 두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데 초점을 둔 사이버 공간이라면, 블로그는 불특정 다수를 독자로 삼아 필자의 전문적인 정보나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견해를 다룬 글들이 주로 소통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정현선, 2013).

소통되는지 이해하고 적용해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경향이 문자 중심의 전통적인 글쓰기를 경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21세기 청소년 학습자에 대한 진단에서 분석적 사고보다는 삽화적 사고가 증가하고 주의 집중 시간이 짧아지며, 성찰적 이기보다는 반사적 언행이 증가한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전통적인 문자 중심의 글쓰기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박인기, 2014).

3. 네트워크 사회와 참여

지난 2010년 영국에서는 학계의 여러 권위자 17명이 모여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아이디어 50가지를 정한 뒤 온라인으로 순위를 결정하는 투표를 실시한 적이 있다. 수천 명의 누리꾼들이 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이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아이디어는 ‘인터넷’이었고 2위가 ‘문자’였다. 투표 결과와 함께 50가지 아이디어가 각각 시사하는 바를 책으로 엮은 존 판던(John Farndon)은 인터넷의 경우 인류를 하나의 거대한 두뇌로 만든 아이디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Farndon, 2010). 이제 우리는 이른바 네트워크 사회(van Dijk, 1991)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로 인해 네트워크 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 다이크(van Dijk)는 이 네트워크 사회가 우리의 삶에 양날의 검과 같이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뉴 미디어는 정보에 밝은 시민, 고용인 및 소비자들이 의사 결정 조직들과 보다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뿐만 아니라 의사 결정 조직에 더욱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어 원칙적으로 민주주의를 강화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기술은 위로부터의 통제에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기술이 제공하는 상호 작용성으로 인해 자유, 예를 들면 소비자를 위한 선택의 자유가 증진될 거라고 주장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다 비관적인 관점에서, 등록된(registered) 시민, ‘모든 것이 드러나는(transparent)’ 고용인, 그리고 모든 개인적 특성이 감시를 받아 소비자로서의 개인 프라이버시가 줄어들 것이며, 그리고 중앙 통제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자유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예측한다(van Dijk, 1991:9).

반 다이크가 우려한 바를 실제 우리 삶 속에서도 종종 경험할 수 있다. 인터넷에 올라온 부정확한 정보, 또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담론에 현혹되어 그릇된 판단을 하는 순간, 여론의 쓸림에 따라 주체적으로 사유할 기회를 놓치는 순간 등이 그러하다. 디지털 기술이 1인 매체의 시대, 즉 누구나 자기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막상 담론을 만드는 사람은 소수이고 수용만 하겠다는 사람이 절대다수라면 1인 매체 시대의 본질은 제대로 실현된다고 보기 어렵다.

네트워크 사회의 순기능을 최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차적인 원리는 대중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균형과 견제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그러한 원리를 실제로 보여 주는 한 예로 위키피디아(Wikipedia)를 들 수 있겠다. 위키피디아는 누구나 참여하여 새로운 지식을 생성할 수 있고 불충분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수시로 수정할 수 있는 온라인 백과사전이다. 지난 2001년에 시작된 이후 위키피디아는 내용의 양과 정확성 측면에서 이미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위상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국어 교육에서도 자발적 참여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지난 20세기의 국어 교육이 마치 브리태니커의 경우처럼 소수의 전문가가 생산한 텍스트를 잘 이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21세기 국어 교육에서 관심을 갖는 자발적 참여란 거기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텍스트를 직접 생산하고 이를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함으로써 네트워크상의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이 생산한 1차 텍스트에 대해 댓글 등의 참여 방식으로 2차 텍스트를 제공함으로써 제3의 독자가 두 텍스트를 종합한 후 보다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 결정에 이르도록 하는 것 또한 자발적인 참여의 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막상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목격하기는 그리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이는 국어 교육이 해결해 나가야 할 당면 과제이기도 한데, 그 방안의 하나로 학생들에게 무조건 쓰라고 하기보다는 써야 할 적절한 동기를 부여하고 쓰기를 통해 자신이나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박영민, 2012).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하자면 왜 즐겨 쓰려 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어 교육 밖의 영역에서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단적인 예를 한두 가지만 언급하자면, 쓰기 능력이 각종 선발 과정에서 매우 제한된 형태로만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비이성적이고 인신공격적인 댓글 문화도 글을 쓰는 사람을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우리 사회 전반의 소통 문화가 개선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5번 항목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할 것이다.

4. 쓰기에 대한 성인들의 관심 증가

현대 사회를 일컬어 지식이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사회, 즉 지식 기반 사회라고 한다. 쓰기는 곧 지식을 창출하는 행위인 만큼 쓰기와 지식 기반 사회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우리의 산업 구조도 점차 지식 기반 산업으로 변모함에 따라 직무 수행 과정에서 지식 생산 활동의 일환으로 쓰기가 필요한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또, 지식의 생명 주기가 짧아지면서

평생직장의 개념도 희박해져 구직 활동의 과정에서 자기를 충실히 소개할 수 있는 글쓰기에 대한 필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자신의 현재 글쓰기 수준 사이의 격차에 대한 인식은 곧잘 학교 교육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초·중등 단계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쓰기 교육이 얼마나 졸업 후의 직무와 연계하여 계획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은 형편이다. 학계에서도 최근 들어서야 이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학술적인 논의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의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쓰기 경험 자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이다(최승식, 2011). 어떤 형태의 글쓰기이든 초·중등 단계에서 축적된 글쓰기 경험은 직무 수행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으나, 쓰기 경험 자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쓰기라는 활동 자체가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

최근 들어 학교의 쓰기 교육과 졸업 후의 직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연계해 보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다. 일례로 한 보고서(옥준필·김선태·김기홍, 2012)에서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 문서나 이력서 작성, 계획서의 작성과 프레젠테이션 등에 초점을 맞춘 ‘실용 국어’ 과목의 개설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제기된 적이 있으며, 실제로 2015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의 진로 선택 과목으로 ‘실용 국어’를 설정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과 연계한 교육 내용을 반영하기도 하였다. 대학에서의 쓰기 교육에서도 직무와의 연계를 고려한 교육 과정 운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나은미, 2016; 정희모, 2015 등).

한편 현재 우리 사회에서 대중들, 특히 성인들의 쓰기 요구가 꼭 직무와 연계된 것만은 아니라는 점도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쓰기 교육의 양상을 들여다보면 대체로 시, 수필, 자서전, 기행문 창작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옥현진, 2014). 이들 프로그램

은 대체로 도심에 위치한 성인 대상 교육 기관에서 유료의 형태로 한두 학기 일정으로 운영되는 경향을 보인다. 박인기(2014)에서는 글쓰기의 층위를 내성적 자기 투사적 글쓰기와 사회적 참여의 글쓰기로 구분한 적이 있는데, 그중 위의 프로그램들은 전자에 더 가깝다. 이와 관련하여 초·중등 학교 교육에서 전반적으로 쓰기 교육이 부족하지만 특히 전자와 관련된 쓰기 교육이 부족하다는 점은 차제에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지자체나 공익적인 성격을 띤 교육 기관을 중심으로는 한글 교실과 같이 기초적인 쓰기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의 경우 과거 학령기에 초·중등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노인 세대나 이주 노동자,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이 주된 학습 대상이 되고 있다. 미래를 한번 전망해 본다면 기초 쓰기 교육을 필요로 하는 노인 세대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의무 교육의 수혜를 받지 못한 인구의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 사회의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속도를 고려할 때 이주 노동자나 결혼 이주 여성의 요구에서 비롯된 기초 쓰기 교육은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쓰기 교육의 범위를 학교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전반으로 확장해 놓고 본다면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 쓰기 교육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5. 새로운 사회 문제의 등장과 쓰기 윤리 교육 계획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한 소통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새로운 유형의 사회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음란물과 폭력물의 무분별한 유통, 인터넷이나 게임에 대한 과몰입 현상,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이 그 구체적인 예이다(정현선, 2006). 이러한 문제는 특정 상황에서 특정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우리 사회 구성원

상당수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문제란 점에서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일례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2014)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학생(초4~고3)의 19.0%가, 그리고 성인의 30.5%가 최근 1년간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이버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 정보 윤리 또는 정보 통신 윤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정보 통신 윤리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의 상당 부분은 직간접적으로 쓰기 활동과 관련을 맺고 있다. 이에 국어 교육계 내에서는 쓰기 윤리, 쓰기 윤리 교육 등의 개념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데, 가은아(2009:233)의 정의를 빌리자면 쓰기 윤리란 ‘쓰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도리 또는 행위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쓰기 윤리 교육의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범주화가 가능해 보인다. 하나는 쓰기 윤리 교육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생과 교사의 쓰기 윤리에 대한 인식을 점검하여 이를 토대로 교육 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이다. 우선 전자와 같은 움직임은 쓰기 윤리를 위배하는 사회 현상들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가 그동안 쓰기 교육에서 쓰기 윤리의 문제를 본격적인 교육 내용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일례로 가은아(2009)의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 쓰기 윤리 교육의 내용을 크게 정직하게 쓰기, 진실하게 쓰기, 사실대로 쓰기, 배려하며 쓰기의 네 범주로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제안한 바 있다.

후자, 즉 쓰기 윤리 인식에 대한 연구는 다시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일례로 박영민(2009)의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쓰기 윤리 위배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학생들의 발달적 특성(일탈 행동이 급증하는 사춘기의 특성), 쓰기 동기 요인(쓰기를 경쟁적 과제로 인식하고 외적 보상에 집착하게 만드는 교육 환경),

쓰기 윤리를 강조하지 않는 쓰기 교육 환경 등으로 언급하였다. 서수현과 정혜승(2013)의 연구는 교사들의 쓰기 윤리에 대한 인식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쓰기 윤리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교사들의 쓰기 윤리를 점검하고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쓰기 윤리 및 쓰기 윤리 교육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이 문제가 국어 교육만의 노력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강민경(2012:32)은 최근 한 연구에서 '쓰기 윤리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학생들이 쓰기 윤리를 지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하더라도, 쓰기 능력, 쓰기에 대한 정의적 태도, 컴퓨터 및 인터넷을 활용한 쓰기 상황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쓰기 윤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규범의 필요성, 학교의 교육 풍토, 교사의 수행 평가 운영 등의 문제가 쓰기 윤리를 위반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박영민(2009)의 연구에서 언급한 쓰기 동기의 문제는 환언하자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글을 쓰는가보다는 최종 산물로 만들어진 글의 우수성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처럼 쓰기 윤리의 문제는 학교 문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다른 한 연구(성동규 외, 2006)에서는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강화될수록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이 감소하며 이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여러 개인 변인 중에서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사이버 폭력 가해 행위에 두 번째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참고 문헌

- 가은이(2009), 중·고등학생을 위한 쓰기 윤리 교육의 방향과 지도, 《작문 연구》 8, 231~250.
- 가은이(2010), 국어 교사의 쓰기 윤리 의식 및 쓰기 윤리 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한어문교육》 22, 415~444.
- 강민경(2012), 고등학생의 쓰기 윤리 실태 연구, 《국어 교육 연구》 50, 1~36.
- 낙은미(2016), NCS 직업 기초 능력으로서 의사소통 능력의 검토와 대학에서 의사소통 교육의 방향, 《작문 연구》 28, 93~122.
- 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2015), 《2015년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 박영민(2009), 중학생의 쓰기 윤리 인식 분석, 《작문 연구》 8, 165~196.
- 박영민(2012), 초등 국어 교육에서 쓰기 태도 교육의 내용과 방법, 《한국 초등 국어 교육》 50, 135~159.
- 박인기(2014), 글쓰기의 미래적 가치, 《작문 연구》 20, 9~36.
-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2014), 《2014년 사이버 폭력 실태 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 서수현·정혜승(2013), 교육 대학교 학생들의 쓰기 윤리에 대한 경험과 인식, 《작문 연구》 18, 175~207.
- 성동규·김도희·이윤석·임성원(2006),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 유발 요인에 관한 연구,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19, 79~129.
- 옥준필·김선태·김기홍(2012), 《특성화고 교육 혁신 방안 연구》,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 옥현진(2014), 성인 문식성 교육 과정 개발 방향 탐색, 《국어 교육》 146, 225~249.
- 정현선(2008), 인터넷 공간에 대한 저자의 인식과 글쓰기 윤리, 《작문 연구》 6, 161~191.
- 정현선(2013), SNS의 언어 현상과 소통 공간에 관한 국어 교육적 고찰, 《국어 교육》 142, 79~112.
- 정희모(2015), 활동 이론(Activity Theory)을 통한 직업 문식성 교육 방안, 《작문 연구》 24, 179~210.
- 최승식(2011), 현행 작문 교육과 2009 개정 교육 과정 시행의 문제, 《작문

- 교육》 13, 61~85.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3), 《한국인의 역량, 학습과 일: 국제성인역량조사 (PIAAC) 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황성근(2014),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글쓰기에 끼친 영향성 연구, 《사고와 표현》, 7, 133~159.
- Farnon, J.(2010), *The world's greatest idea: The fifty greatest ideas that have changed humanity.* / 강미경 역(2012), 《오! 이것이 아이디어다》, 웅진지식하우스.
- van Dijk, J.(1991), *De Netwerkmatschappij.* / 배현석 역(2002), 《네트워크 사회》, 커뮤니케이션북스.